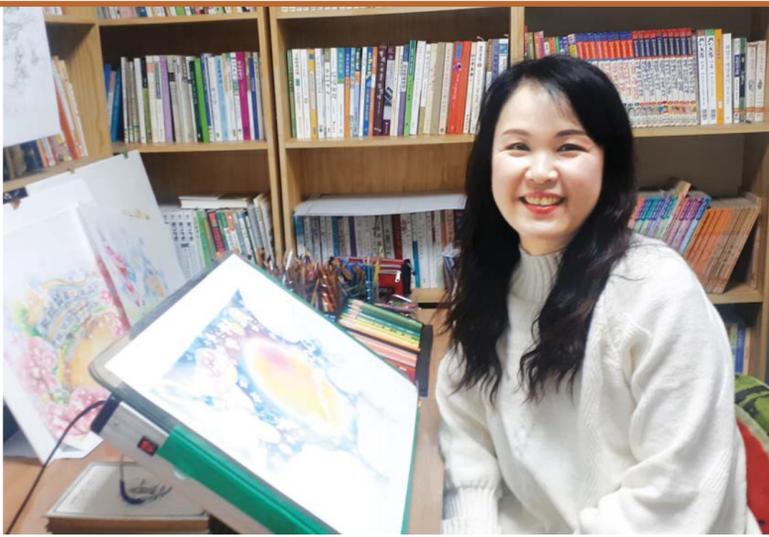


“가치없다 생각되는 시간도 인생의 고마운 씨앗”

2021 새로운 출발

〈2〉윤미경 동화작가



안경사→미술 강사→동화 작가 '시간거북이의...' MBC 장편 대상 동화책·그림책 등 올해 12권 계획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고들 한다. 급전직하, 급전상승하는 롤러코스터가 인생을 닮았다는 것이다. 변화무쌍해서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삶인 걸 보면 수긍이 간다.

곡식 출신 윤미경 동화작가. '무지개작가'라고도 불리는 그의 삶 또한 극과 극을 오갔다. 그는 동화작가가 되기 전 안경사로 6년을 근무했다.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시간"이면서도 한편으로 "그 시간이 인생에 있어 고마운 씨앗"이기도 했다.

그를 만나기 위해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자리한 신일작은도서관을 찾았다. 윤 작가는 이곳 상주작가로 입주해 작품 창작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주위를 환하게 물들이는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다. "천상 동화작가가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을 졸업하고 안경사로 근무하면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의미를 몰랐습니다. 재미도 없었고 보람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후일 MBC 장편 대상을 수상한 '시간거북이의 어제만경'은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원래 그의 꿈은 화가였다. 그의 말대로 "뜻하지 않게 안경사가 됐지만 꿈은 줄곧 화가"였다고 한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안경사로 근무를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안경사로 일을 하면서다.

"그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어찌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햇갈리기 시작해서 독후감을 쓰기 시작했는데, 400여 편에 이르더라고요. 어느 때는 읽었던 책을 통째로 필사를 하기도 했죠. 그 외에 7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썼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때의 습작과 독서가 지금의 바탕이



창작과 강의로 바쁘게 활동하는 윤미경 작가는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말한다.

했다. 동화작가로 등단하기 전 수채화가로 활동했다. 10년 동안 학교에서 미술 강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미술강사가 되기 위해 무려 28개 자격증을 땀다"며 "아동미술지도사, 종이접기, 북아트, 초코아트 등이 그때 취득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동화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우연한 기회에 동화책 일러스트를 보고, 동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소문 끝에 이성자 동화작가가 운영하는 문예창작소를 알게 됐고 그 길로 찾아가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글을 써보면 나중에 더 깊이 있는 작품을 쓰지 않겠느냐"는 선생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 '난생 처음 동화를 썼다. 그때 그의 나이 서른아홉이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쓴 작품이 황금펜문학상을 수상한 '고슴도치, 가시를 마다'. 뒤이어 지역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고, 2015년에는 '달려라 불랑랑자'로 푸른문학상을 수상한다. 그리고 2019년에는 장편 '시간거북이의 어제만경'이 MBC 창작동화대상에서 대상을 받게 된다. 반면에 웃음을 띤 얼굴로 술술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 걸까. 좀더 그의 창작비밀이랄까, 이면의 모습을 듣고 싶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들이면 도가 튼다"는 말을 믿습니다. 하루 한 장씩 100일간 얼굴을 그리거나, 15년 동안 목요일이면 시간을 정해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요. 비로소 2015년에 광주시 미술대전에서 추천작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에게서는 동화적 에너지가 느껴진다. 동화작가가 되기 위해 "수백 권의 그림책을 읽고

그렸다"는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만만찮은 내공이 느껴지는 이면에는 그러나, 다른 어두운 면도 내재돼 있었다.

작가가 되기 오래 전, 오롯이 혼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아픔도 겪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지난 2016년 전업작가를 하기로 선언했다. "1년 동안 고작 3만원"을 벌었고, 기타 잡기름 등 부식재료를 얻었다.

글을 써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글자와 부호 하나하나를 곧 돈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혈을 들여서 작품을 쓰리라 각오를 다졌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노력은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면서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도서관 등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행히 '무지개작가'는 무지개파마머리와 멜빵바지, 줄무늬 티셔츠를 입으면서 붙여졌다.

"무지개개발은 원래는 제 그림책 주인공의 헤어스타일입니다. 또한 이 개발은 저의 아빠가 원래 주인이었죠.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셨던 아빠가 정년퇴직을 하고 불우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썼어요. 제가 눈여겨봤다가 '강탈하다시피' 훔쳐왔어요 (웃음)"

올해도 많이 바쁠 것 같다. 출간 계약을 끝낸 책이 "12권이든 된다"는 말이 돌아온다. 이번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읽었는지 "그림책 3권과 동화책 9권이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인다.

"글을 쓸 때 중요한 것은 '즐거워'는 것입니다. 창작의 고통은 무엇에 비할 수 없지만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또한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도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글·사진·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선희 작 '라니'



생태와 환경을 되돌아보다

'생태조감도' 전 3월31일까지 하정웅미술관

슬픈 눈망울의 고라니가 당신을 바라본다. 무슨 이야기를 건네고 싶은 듯도 하다. 알록달록 수천개의 자투리 조각보가 만들어내는 터널을 지나면 각자의 생각을 한뼘 한뼘 새겨나간 많은 이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볼게 된다.

코로나 19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무심했던 자연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 생태와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사회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술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 분관 하정웅미술관이 지속적으로 환경, 생명 등에 관심을 갖고 작업해온 4명의 작가를 초청, '생태조감도' 전(3월31일까지)을 열고 있다. 김신운·주·김안나·문선희·박소연 등 네 명의 작가는 설치, 영상, 사진, 회화 등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지구라는 자연의 생태계와 함께 사회의 생태, 마을의 생태까지를 살피는 작업을 해온 작가들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다른 공공프로젝트를 설치, 퍼포먼스, 비디오, 사진 등 다채로운 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김신운 작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꾸민 조각보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작품

'One heart'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과 공감의 표현들이 서로 연결돼 사회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조각보 숲을 지나면 제작 과정을 담은 비디오 영상도 만날 수 있다.

김안나 작가는 전시작품 '숨'을 통해 실제 숲을 영상시키는 가상공간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실제 숲속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은 바깥의 기후와 대기오염 농도에 따라 반응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를 화면에서 보여준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와 함께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상호 관계와 연결망에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구체적으로 땅 속에 묻혀버린 동물,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 고공농성 현장으로 택한 탑 등을 소재로 강렬한 작업을 해온 사진작가 문선희는 흑백 졸업 앨범 형식을 차용한 고라니 초상사진 연작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에 등장하는 고라니들은 포획과 로드킬로 인해 염마를 잃은 새끼들로 그들의 표정과 눈빛은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박소연은 식물을 그림으로 그리는 작가다. 소박한 나무와 꽃들을 세심하게 그려낸 작가의 작품은 우리가 늘상 만나는 자연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권한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하정웅 미술관 '생태조감도'전에서 만나는 김신운주 작 'One heart-2013-2020'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일요일 정상 영업**